

입 후보 소견서

존경하는 열정의 부산건축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건축가회 수석부회장 후보 김두진입니다.

먼저, 1963년 창립이후 부산건축가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선.후배 건축가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6년 부산건축가회에 입회하여, 2013년 부산건축가회 50주년 행사위원장, 2014년 기획이사, 2016년부터는 대외부회장, 교육부회장, 운영부회장을 맡아오면서 부산건축가회와 함께 성장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건축환경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따른 건축설계시장의 축소, 건축관련단체의 기득권 고수, 새로운 건축단체의 도전등으로 각 단체는 소위 '각자도생'이라는 입장입니다.

건축문화라는 무한적 가치 아래 대립보다는 소통하고, 전유보다는 공유하고, 분열보다는 연대하는 건축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에 활동하고 있는 9개 건축관련단체의 연대를 통해 지역적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축문화의 공간적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산건축가회의 기존 사업영역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우리 회의 건강 한 조직구성은 물론이며, 함께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조직활동을 사회적 연대로 확대 하여 건축적 이슈와 이벤트화로 건축문화의 사회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부산건축가회 주요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건축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확립을 위한 다각 적인 사업모색을 통하여 회원 관리와 권익 보호에 주력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부산건축가회 사무처 설치로 대내외적 업무수행 체계로 건축문화의 건축적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부산건축가회 창립60주년 행사를 통해 성장, 발전하는 부산건축가회의 위 상과 모든 회원이 함께 동행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부산건축가들의 뜨거운 열정으 로 더 힘차고 재미있는 부산건축가회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회의 vision인 "행동하는 건축 가, 되살리는 건축가, 창조하는 건축가, 명예로운 건축가"에 걸맞는 부산건축가회의 분명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열정의 부산건축가회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2.

소견인 부산건축가회 수석부회장 후보
김 두 진 (인)

